파키스탄 '국가비상사태' 선포

무샤라프, 정권 연장 여부 결정 大法 판결 앞두고

부토 前 총리 급거 귀국길…국제사회 비난 잇따라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연장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헌법령을 발동했다고 국영TV가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임시헌법령은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판을 치고 있다. 또 일부 판사들은 극단주의에 맞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정부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샤라프의 대선후보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이던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의 활동이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내각과 상·하원, 지방의회의 활동은 유지될 것이라고 국영TV는 전했다.

이날 파키스탄 대법원에는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군 병력과 경찰이 배치됐고, 원내에 있던 이프티카르 초우더리 대법원장은 쫓겨났다고 뉴스전문 채널인 돈 뉴스가 보도했다.

또 무샤라프의 재선을 반대해온 파키스탄 인민당(PPP) 의원인 아이트자즈 아산이 구금됐으며, 이슬라마바드의 모든 비정부기구(NGO)들도 활동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TV와 라디오 방송국에도 병력이 배치돼 방송 송출을 차단했으며 전국의 전화망도 전면 두절됐다.

그러나 무샤라프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법원과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전면 중단 명령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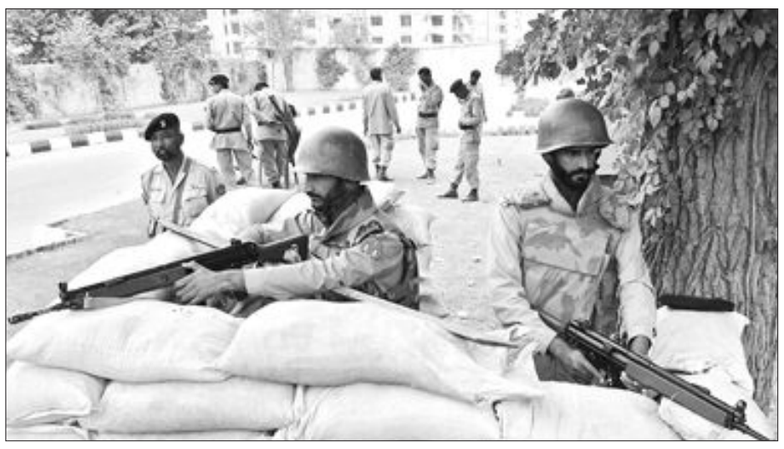
무샤라프의 정적인 샤리프 전 총리측 대변인은 "패배한 독재자의 무모한 행동"이라며 "대법원이 재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무샤라프와의 '권력 분점' 파트너로 지난 달 귀국했다가 최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두바이로 일시 출국했던 부토 전 총리는 비상사태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1999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뒤 군참모총장과 대통령을 겸임해온 무샤라프는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자신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인해 당선을 확정짓지 못했다.

따라서 무샤라프가 이처럼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대법원이 자신의 정권연장을 저지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샤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새롭게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한 뒤 자신의 후보자격에 관한 헌법소원판결을 입맛대로 조정, 정권 연장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3일 성명을 내고 "무샤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면서 "무샤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



파키스탄 군인들이 무샤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인 4일 이슬라마바드 대법원 근처 벙커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中 '창어 1호' 달 궤도 진입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1호'가 5일 오전 10시(현지시각)께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베이징 우주비행통제센터의 궤도통제실 탕거스 주임은 4일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창어1호가 5일 오전 10시께 제동장치를 가동해 달 궤도에 처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어1호는 지난 31일부터 지구와 달 전환궤도를 초속 11.2㎞의 속도로 5일간 비행해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이달말 달 표면의 3차원 입체 영상을 처음으로 지구로 전송할 예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

日 오자와 민주당 대표 전격 사임

자민당과의 '대연정' 파문 책임

일본 정계의 '풍운아'로 불리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4일 대연정 파문과 관련,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오자와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 2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제의한 대연정 논의 과정에서 당 안팎의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매듭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간부회의에서 자민당과의 정책협의가 거부된 데 대해 "당 간부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자와 대표는 자신의 거취 문제를 당 간부회의 및 당원들에게 일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임 인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7월 민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일본 정국을 사실상 주도해온 오자와 대표가 물러날 경우 향후 정국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쿠다 총리도 현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을 제쳐놓고 연정을 제의했다가 실패함에 따라 비판을 사기는 마찬가지여서 그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오자와 대표는 대표 회담에서 대연정 제의를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고 당내 간부회의 논의에 부치는 등 연정에 동의하는 듯한 애매한 대응으로 당내는 물론 다른 야당들로부터 '밀실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쿄=연합뉴스

■美 대선 1년 앞으로 ㊊ 판세와 전망

힐러리-줄리아니 '2強' 구도

4일로 2008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미 대선전은 이미 공화, 민주 양당 예비후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D-365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면서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미 대선전 레이스를 ▲현재 판세와 전망 ▲선거 주요 이슈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짚어본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초반부터 열기를 내뿜고 있다. 민주, 공화당 주자들이 내년 1월 3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 10일쯤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자금과 조직, 인맥을 총동원,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지며 사력을 다하는 탓이다.

판세는 2강(强) 구도로 압축돼가는 양상이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 주인공들이다.

민주당은 힐러리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조에 힘입어 독주체제를 굳혀가고 있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이 추격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공화당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꾸준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존 매케인 상원의원,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프레드 톰슨 전 상원의원이 바짝 뒤를 쫓고 있다.

◇**힐러리-줄리아니 대세론 이변 없나**=그간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힐러리, 줄리아니는 이미 대세론에 올라탔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다.

힐러리 '마의 50%' 지지 돌파…독주 체제

줄리아니 대세론 편승 '네오콘' 속속 합류

민주·공화 자금·조직·인맥 총동원 승부수 던져

이미 힐러리는 '마(魔)의 50%' 지지도를 넘어섰고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부부대통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줄리아니도 4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도로 당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막후 지원하던 네오콘(신보수주의) 인사들도 줄줄이 줄리아니 캠프에 합류하고 있다.

다만 줄리아니는 당내 경쟁자들의 약점 때문에 '대안부재론'으로 대세론에 편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20여년간 미국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온 아이오와대 비즈니스스쿨의 '아이오와 전자시장(IEM)'이 지난 29일 이번 대선이 클린턴, 줄리아니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도 힐러리가 결국 4%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민주-공화, 러닝메이트 짝짓기 한창**=힐러리와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는 오바마를 비롯,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이 거론된다.

오바마는 신세대와 흑인표를, 리처드슨은 라티노(중남미 출신) 표를 겨냥한 것이고, 클라크 전 사령관은 여성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불식시켜줄 카드라는 점에서 비교우위다.

줄리아니와 러닝메이트를 이룰 부통령 후보로는 단연 매케인 상원의원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매케인은 월남전 포로로 잡혔을 때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골수 보수'라는 점에서 줄리아니의 약점을 채워줄 대안으로 인식된다.

일각에선 준수한 용모와 설득력있는 언변을 갖춘 롬니를 거론하지만 몰몬교도라는 한계 때문에 오히려 당내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자주 거명되고 있다.

◇**보수-진보층 표심 어디로 가나**=이번 대선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조기에 각당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과거 3월에 집중됐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일정이 2월로 대거 앞당겨지면서 내년 2월이면 각당 후보가 사실상 판결날 전망이다.

다만 11월 대선 본게임을 앞두고 과거와는 달리 보수, 진보층 유권자들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선거의 한 두드러진 특징이다.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는 원래 진보였으나 보수층의 표심을 의식,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데 이어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지원단체로 규정하는 상원 결의안에 찬표를 던지는 등 보수색깔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의 줄리아니는 전례없이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